MBC, 막강한 2019 상반기 드라마 · 예능 라인업 공개

아이템 · 더 뱅커 · 봄이 오나 봄 · 마리텔2 등

MBC가 상반기, 막강한 드라마 예능 라인업을 속속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MBC는 '아이템' 부터 '더 뱅커', '이몽', '봄이 오나 봄', '구해줘 홈즈', '마리텔2' 등 화려한 라인업을 공개했다.

지훈, 진세연, 김강우 등 캐스팅의 면면만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아이템'(극본 정이도, 연출 김성욱)은 2019년 상반기 MBC 최대 기대작. 미스터리 블록버스터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힘이 깃든 '아이템'을 가지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 '강곤' 역할에 주지훈이 캐스팅 됐고, 냉철한 모습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프로파일러 '신소영'에 진세연, 그리고 '아이템'을 통해 살인 놀이를 즐기는 소시오패스 '조세황' 역할에 김강우가 합류했다.

오는 2월 11일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연기 神들만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더 뱅커'(극본 서은정 오혜란 배상욱, 연출 이재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기대작. 김상중, 채시라, 유동근 등 주연 배우들의 '연기대상' 수상 경험만 도합 8번에 달하는 그야말로 '연기 神'들의 드라마다. 돈과 권력이 소용돌이치는 시대에 한 은행원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은 '더 뱅커'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금융 오피스 드라마'를 표방하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중 첫 방송된다.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이를 기념해 MBC는 시대극 '이몽'(극본 조규원, 연출 윤상호)을 통해 암울했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나갔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이몽'은 일제강점기 경성과 만주 그리고 중국 상해를 배경으로 펼치는 첩보 멜로 드라마. 일본인에게 양육된 조선인 외과 의사가 상해임시정부의 첩보 요원이 되어 태평양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활약을 펼치는 블록버스터 시대극이다. 이요원이 조선인 외과의사 '이영진'으로 변신하고, 유지태가 '약산 김원봉 선생'을 맡아 연기한다. 오는 5월중 방송 예정이다.

2019년 MBC 첫 미니시리즈로 선보이는 '봄이 오나 봄'(극본 이혜선, 연출 김상호 박승우)은 몸이 뒤바뀐 두 여자의 자아 찾기를 다룬 판타지 코미디.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던 앵커 '보미'와 배우 출신이자 국회의원의 아내 '봄'이 서로의 몸이 바뀌며 벌어지는 상황을 코믹하면서도 따뜻하게 담아낼 예정이다. 극성 강한 연기부터 코믹까지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를 펼쳐온 배우 이유리와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탄탄한 연기력으로 '믿고 보는 배우' 엄지원이 각각 '보미'와 '봄'을 맡아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1월 23일 안방을 찾아간다.

뿐만 아니라 '아이템' 후속으로 예정된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극본 김반디, 연출 박원국) 역시 '신과 함께'로 천만 배우 반열에 합류한 배우 김동욱이 타이틀 롤 '조진갑'을 맡으며 기대를 더하고 있고, 이후 2018년 '한국형 수사물' 시리즈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MBC 최초 시즌제 드라마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검법남녀2' 또한 그 저력을 기대해 볼 만 하다. 또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잔잔한 일상 멜로를 선보이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던 안판석PD-김은 작가의 '봄밤(가제)'이 5월중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 잡을 예정이다.

예능 부문에서는 참신한 기획이 더해진 새로운 장르의 프로그램 '호구의 연애' '구해줘! 홈즈' '킬빌'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과 MBC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시즌2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호구의 연애'(호감 구혼자의 연애)는 사랑에 빠지고 싶은 연예계 스타 5인과 일상에 지친 여성들이 함께 동호회 여행을 떠나는 새로운 장르의 리얼 로맨스 버라이어티다. 예능과 연애가 함께하는 신선한 여행 로맨스라는 소식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세대 MC 허경환, 박성광, 양세찬을 비롯해 인피니트 동우, 라이징 배우 김민규가 출연한다. 3월 첫 방송.

2019년 첫 예능 파일럿 '구해줘! 홈즈'는 바쁜 현대인들의 집을 찾기 위해 스타들이 직접 나서서 발품을 파는 '리얼 발품 중개배틀'이다. 예능 최초로 시도되는 부동산 버라이어티로 오는 2월 초 방송된다.

'킬빌'은 국내 최정상급 힙합 가수들 간 경연을 통해 빌보드 차트 점령을 노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양동근, 도끼, 제시, 산이, 치타, 리듬파워, 비와이 등 국내 힙합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1월31일 첫 방송을 내보내며, 10회에 걸쳐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인접한 두 나라의 국경을 넘는다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시작해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탐사 여행으로 호평을 받은 '선을 넘는 녀석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으로 찾아온다. 전현무, 설민석, 문근영, 다니엘 린데만, 유병재가 출연하며, 한반도의 '선'을 찾아 떠나는 본격 근·현대사 여정을 그릴 예정이다. 2월 방송 예정.

이 밖에도 인터넷 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결합이라는 파격적인 시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새 단장을 준비하고 올 상반기 시즌2로 돌아와 기대를 모은다.

'왕이 된 남자' 앞 월화극 의미無 시청률 대결

경쟁이 무의미하다. 도토리 키재기 시청률 속 너도 나도 1위를 탈환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엔 '왕이 된 남자' 앞 무의미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상파 전체 월화극이 5%대의 시청률을 유지 중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KBS2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한상우 연출, 이하 조들호2), 그리고 MBC '나쁜형사'(허준우 극본, 김대진 연출)는 5%와 6%를 넘나드는 시청률을 유지 중이고, 최하위를 유지 중인 SBS '복수가 돌아왔다'(김윤영 극본, 함준호 연출)도 4%와 5%를 넘나들며 세 드라마 모두 '도토리 키재기' 시청률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뚜렷한 승자도 없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조들호2' 7회와 8회는 전국기준 5.8%와 6.6%를, '나쁜형사'는 5.6%와 6.3%를 기록했으며, '복수가 돌아왔다'도 4.9%와 5.9%를 기록, '별반 차이 없는' 시청률 대결이 완성됐다.

한마디로 현재 방영 중인 월화드라마 중 어느 하나 특출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들호2'는 전작인 시즌1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쁜형사'는 초반 시선몰이를 하며 10%대 시청률을 유지했지만 중반 이후 억지스러운 설정과 답답한 전개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 '복수가 돌아왔다'도 잔잔한 힐링을 선사하는 드라마임에는 분명하지만, 큰 사건 없이 '빅재미'를 누리기는 어려운 작품이다. '노잼(재미가 없다는 신조어)'이라는 단어만큼 지상파 월화극의 상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 때문인지 '계룡선녀전'으로 잠시 주춤했던 tvN의 월화극이 되살아나는 중이다.

김희원 PD의 연출력과 여진구의 1인2역이 합쳐져 연일 역대급 재미를 주고 있는 tvN '왕이 된 남자'(김선덕 극본, 김희원 연출)는 15일 방송된 4회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가구 평균 8.9%, 최고 10.6%를 기록했다. 지상파와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화제성과 시청률을 동시에 두고 봤을 때 지상파 3사의 월화극보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방영 초반 시선몰이를 확실하게 한 '왕이 된 남자'는 1인 2역의 여진구를 필두로 이세영과의 러브라인까지 불이 붙으며 상승세의 청신호를 켰다.

광대인 하선과 중전인 소윤(이세영)의 러브라인이 급물살을 타며 극에 대한 재미를 더한 것. 여기에 MBC '돈꽃'으로 역대급 영상미를 만들어냈던 김희원 PD와 연기인생 최고의 명연기를 펼치고 있는 여진구가 더해져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작품이다.

이 때문에 지상파가 아닌 '왕이 된 남자'에게로 채널이 돌아가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다.

케이블과 종편이 강세를 보일수록 매번 등장하는 것이 지상파 위기론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왕이 된 남자'의 계속된 흥행 속 지상파 3사 월화극은 초라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다.

美 빌보드 "몬스타엑스, 2019년 가장 기대되는 K팝 앨범"

그룹 몬스타엑스가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선정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K팝 앨범 10'에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는 최근 '2019년의 가장 기대되는 K팝 앨범 10'(The 10 Most Anticipated K-pop Albums of 2019)을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몬스타엑스가 2019년 발표할 앨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빌보드는 앞서 몬스타엑스와 함께했던 인터뷰를 소개하며 "몬스타엑스가 현재까지 가장 큰 미국 쇼를 개최하고 '징글볼' 투어에 참가한 첫 K팝 그룹이 되는 것을 본 중요한 해가 지난 후, 지난해 말 빌보드와의 대화에서 2019년 계획을 조심스럽게 유지했다"고 앨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멤버 기현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몬스타엑스는 이미 다른 가수들과 몇 가지 일을 해냈지만, 그것은 극비"라고 새 앨범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끌어올리기도 했다.

또한, 빌보드는 "몬스타엑스는 지난 10월 발표해 월드 앨범 차트 톱 10에 들은 앨범 'Take.1 Are You There?'(알 유 데어?)에 이어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들의 'Take.2' 앨범에 대해서 언급, 이후 더 많은 영어 트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지난 'Shoot Out'(슛 아웃) 영어 버전의 이은 영어 버전 신곡 발매의 바람도 덧붙였다.

몬스타엑스는 지난해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3월 발표한 미니앨범 'THE CONNECT'와 수록 타이틀곡 'Jealousy'로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차트 1위, 아이튠즈 K팝 앨범 차트 25개국 1위, 한터 차트 1위, 일본 타워레코드 1위,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2위에 올랐다.

이어 7개월 뒤인 10월 발표한 정규앨범 'TAKE.1 ARE YOU THERE?'와 수록 타이틀곡 'Shoot Out'으로는 데뷔 이래 첫 지상파 음악방송 1위와 음악방송 4관왕을 차지했다.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음력 12월 12일)

▶쥐띠 1, 7, 11월생은 매매건이 늦어져 금전 지출 늘어날 듯. ㄱ, ㅇ, ㅎ 성씨는 겉으로는 강해보이지만 속마음이 여리다. 손해를 보고도 말 못하고 당하기만 한다. 가전, 자동차, 귀금속, 컴퓨터 계통 종사자는 길한 날. 북, 동쪽의 유혹을 조심할 것.

▶소띠 3, 4, 10월생은 혼자서 애타는 심정이다. 무거운 짐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애정도 사업도 하나하나가 고달프기만 하다. 하늘이 알 뿐 그 누가 알까. ㄱ, ㄴ, ㅈ 성씨는 애써 도움주고 성급한 행동을 보인다면 상대에게 오해 받을 수 있다.

▶호랑이띠 ㅂ, ㅈ, ㅍ 성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 것. 애정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면 결국 싸움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1, 3, 8월생은 순간의 욱하는 성질이 주변사람을 불안하게 하니 자기수양에 힘써라.

▶토끼띠 별거수가 따르니 5, 9, 11월생은 자신의 감정 잘 다스리고 인내심으로 대처하라. 이상을 향해 쫓으려하기 이전에 지금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임. ㅇ, ㅈ, ㅍ 성씨는 가정의 평화를 우선으로 하고 이상실현은 좀 더 미뤄둠이 좋겠다.

▶용띠 쇠띠, 토끼띠, 개띠가 ㄱ, ㅂ, ㅈ 성씨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겠다. 10, 11, 12월생은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시기니 주변 도움을 받을 것. 대화하면서 서로간 마음이 통하는 날. 바르고 솔직한 대응이 지름길. 검은색이 길색.

▶뱀띠 1, 4, 9월생은 부모와 자녀로 신경 쓸 일이 있다.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되 감제성을 부여하지 말고 순리대로 행하라. ㅇ, ㅊ, ㅎ 성씨는 착실하게 대응하면 복잡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

▶말띠 분위기에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이성운이 따른다. 남자는 패기만만한 자신감이 일에서도 반영된다. 성과가 좋으나 ㄱ, ㅅ, ㅈ 성씨는 여자문제로 구설수로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할 것.

▶양띠 가족 간 애타는 일이 많은 날이지만 ㄱ, ㅂ, ㅈ 성씨는 성급하게만 굴지 말고 화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2, 5, 8월생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오해가 없겠으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자세를 유지함이 좋겠다.

▶원숭이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양심적인 처사다. 하지만 7, 8, 9월생은 북쪽에서 온 ㅁ, ㅂ, ㅍ 성씨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대응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ㄱ, ㅈ, ㅊ 성씨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면 구설이 오겠으니 오늘은 초연한 자세를 유지할 것. 노란색은 피하라.

▶닭띠 사정에 따라 불행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5, 8, 9월생은 좌절하지 마라. 동업은 그만두고 새 길을 찾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ㅁ, ㅇ, ㅎ 성씨는 금전적 타격이 예상보다 크겠으나 자립하면 곧 회복되는 격.

▶개띠 5, 7, 10, 11월생 ㅅ, ㅈ, ㅊ 성씨는 금전관리를 잘하라. 큰돈이 들어오자마자 지출이 느는 격이다. 오늘 마련한 목돈은 재산 증식이 된다. 방송, 언론계통, 무역, 서비스 업종 종사자는 공격적인 태도는 화를 부르니 매사 방어하는 태도가 편한 하루임을 알 것.

▶돼지띠 ㄱ, ㅂ, ㅅ 성씨는 모든 일이 될 듯 안되니 속상하겠다. 그러나 봄날의 햇살처럼 느긋하고 꾸준한 자세로 임하면 오늘 하루 결과가 좋아질 듯. 미혼의 남녀라면 꽃 소식이 들리는 날. 4, 5, 6월생은 빨간 옷이 길하다. 교섭은 남쪽에서 하라.